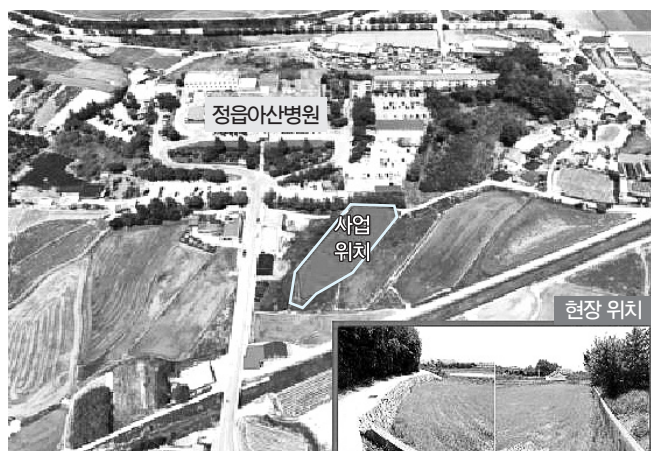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속도'

용계동 일원 75억 투입...내년 3월11일까지 건축 설계 공모 3월말 당선작 발표...서남권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8일자로 시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공모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일원에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089㎡(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모자동실 10실과 신생아실, 격리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공모안 작품을 오는 내년 3월11일까지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에 관련 서류들을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하다. 그동안 서남권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군산, 익산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이마저도 민간 산후조리원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 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 병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예정지.

동 등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

전북교육청, 조례 제정 후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첫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학생(초·4학년~고등학생)·교원·보호자까지 확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권 정책 관련 기초 자료 설문 조사다. 설문 문항은 크게 3개 항목으로 ▲2023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돼 있어 교원의 인권 실태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가 추가돼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됐다. 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인권 실태 조사는 '전북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설문 조사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 의식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내년도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3년 연속 공공하수도 관리 '우수'

수질 관리·악취 저감 높은 점수

고창군이 환경부 주관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지자체 총인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수도 운영·관리·정책 등 3개 분야, 32개 세

부항목에 따라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고창군은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고창군은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질관리와 악취저감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게 앞으로도 하수도 에너지 절감사업, 악취 저감사업 등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가야고분군 가는 길 '가야로'를 검색하세요

세계유산 지정 유곡리·두락리 주소정보위, 도로명 주소 부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가는 길에 '가야로'라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다. 남원시는 전남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심의·의결을 위한 '2023년 제5회 남원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월면과 아영면에 소재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은 지난 9월 17일 '유네스코 제45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확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관련 도로명 부여신청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아영면, 인월면, 남원문화원, 성내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로 '가야로'를 예비도로명으로 위원회에 추천했다. 위원회에서는 아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월면



남원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가는 길에 '가야로'라는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여했다. 사진은 유곡리·두락리 고분.

성내마을까지 이어지는 1031m 도로구간에 대해 '가야로' 도로명 부여와 유곡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을 결정했다. 심의결과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고시된다. 고시 후에는 남원시 '가야로'를 검색할 경우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과 연결되는 도로구간

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야로라는 도로명이 부여됐다"며 "남원의 가야문화 홍보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가야고분군 위치찾기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농업법인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488개소 대상 법인세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 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고창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진)' 7기 입교생을 모집한다. 2024년 1월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고 농어촌(읍면)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년 1월1일이후에 출생한 도시민이 해당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입교예정자는 2월 28일까지 계약과 입주를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체류시설에서 생활하며 귀농귀촌 교

육을 받게 된다. 입교자들에게는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 및 선도농가 현장견학, 공동실습하우스와 공동텃밭 작물재배 경험, 고창군의 문화유산 답사 등의 여러 가지 교육을 습득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올해에는 총 30세대 중 22세대가 입교해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199시간의 농업창업교육을 진행해 19세대가 수료했다. 고창군에 올해 정착률은 55% 12세대이고 지난 6년간 평균 63%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